

 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24. 7. 26.(금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농업기술원	보 도 자 료 PRESS RELEASE	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	양창희	☎760-7901
		업무담당자	임 황	☎760-7943
		홍보담당자	김미리	☎760-7514
동영상(웹하드)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 : 없음

딸기밭의 숨은 영웅, 천적이 해충 잡는다

- 상품률↑ 노동력·농약 사용량↓... 농산물 안전성과 환경 보전에도 기여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가 시설딸기 재배 시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‘천적’ 활용 기술을 도입해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.
- 시설딸기 재배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해충은 점박이응애, 꽃노랑총채벌레, 목화진딧물 등이 있다. 해충의 과도한 발생은 딸기 생육 부진과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며, 특히 수확기에 농약 방제가 불가능해 농가의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.
- 이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부 지역 시설딸기 재배농가 5개소를 대상으로 ‘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병해충 방제 기술 시범사업’을 추진했다.
- 딸기의 주요 해충 발생시기에 맞춰 해충별 천적 6종을 투입해 해충 밀도를 낮추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했다.
 - * 해충별 천적: 응애류(칠레이리응애, 사막이리응애), 총채벌레류(미끌애꽃노린재), 진딧물류(콜레마니진디벌), 작은뿌리파리(곤충병원성선충, 마일즈응애)
- 특정 해충만을 잡아먹는 천적의 습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작물에는 피해가 없고 농약 사용량도 크게 줄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. 또한 해충의 약제 저항성 발현도 줄일 수 있어 내성에 대한 걱정 없이 방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- 사업 추진 결과, 시설딸기 상품률은 15% 늘고, 방제 및 열매 숙기에 필요한 노동력은 각각 61%, 87% 줄었으며, 농약 사용량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앞으로도 천적 활용 기술이 꽃이 피는 시기부터 살충제 사용을 대폭 줄여 안전 농산물 생산과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이성돈 특화작목육성팀장은 “천적의 방사 시기와 사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 요인”이라며 “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병행해 천적 투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